



“생태적 위기 상황과 인간적 실존”

『쓰레-문학의 이름으로』 제11호 발행

문학실험실 펴냄 / 140*240 / 49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생태적 위기 상황과 인간적 실존” 특집으로 엮어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 통권 제II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집의 주제는 “생태적 위기 상황과 인간적 실존”이다. 삼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위협에 인류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인간적 실존’이라는 근원적 물음에서 시작해 그 대안의 가능성까지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범세계적 체제 속에서 최소한의 이성마저 저버리고 행해지는 정치적·종교적 망발로부터 일상의 사회적 삶에서 목격하는 집단적·개인적 광태에 이르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가능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는 이 사태와 맞서는 인간적 ‘태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절망 속에서 일어난 실존주의적 태도를 참조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여기’라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 내던져진 채 모든 의미를 박탈당한 어찌면 애당초 의미가 없었던 실존체임을 받아들이고, 그 ‘실존’의 원점으로부터 앞으로 가능할지도 모를 어떤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기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식’을 끈질기게 작동시켜 보자는 것이다. 다시 또다시, 거듭 시작하면서, 마지막 생존의 내기처럼... 「편집의 말」 중에서

특집 : 생태적 위기 상황과 인간적 실존

1. 근대 문화와 자연의 개념_비판적 재구성의 시도 |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2. ‘생태학’에서 ‘인류세’ 담론까지로 |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이사장)
3. 반복에 관하여: 코로나와 일상 | 김동규 (한국연구원 기획위원)
4. 지질, 기후, 비인류_글쓰기의 근심과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소고 | 윤경희 (문학평론가)
5. 여성적 감각과 상생의 윤리_에코페미니즘과 문학 | 이해원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교수)
6.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_생태 위기와 한국 소설의 대응 | 우찬제 (서강대 국문과 교수)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지구라는 환상 기억 행성

1. 생태 위기와 그 문제의식_코로나 이후의 삶 | 박정은 (일러스트레이터)
2. 기억의 공진화 | 이지아 (시인)
3. 우리는 가끔 환상을 본다 | 정영수 (소설가)
4. 수학자 누(Nu) 17 | 함기석 (시인)

“특집의 첫머리를 여는 「근대 문화와 자연의 개념_비판적 재구성의 시도」에서, 독문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김태환 씨는 근대사회에 뿌리내린 자연/문화의 이분법적 사고를 신화적 근원으로부터 마르크스주의·프로이트주의에 이르기까지 통시적 시야에서 검토한 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개진한다. 그것은 양자의 상호작용이 변화·진화의 과정을 거치며 문화가 단계적으로 새로운 자연이 되어 왔으며,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현실을 재파악해야 한다는 상당히 논쟁적인 견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생태철학자 신승철 씨의 「‘생태학’에서 ‘인류세’ 담론까지」는 공식적 차원에서 인류의 멸종 논의로까지 펼쳐져 있는 현재의 생태학과 인류세 담론의 이론적 지형도와 이 위기에 맞서려는 두 개의 전략을 대비적으로 자상히 소개하고 있다. 그 밑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아내려는 치열한 지적 노력이 깔려 있다. 위의 두 글이 다분히 이론적인 고찰이라면, 이어지는 두 글은 보다 현실과 밀착되어 있다. 특히 미학에 깊이 천착해온 철학자 김동규 씨의 「반복에 관하여: 코로나와 일상」은 일종의 몽테뉴적 시도랄까, 매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관찰을 존재론적 성찰과 인식으로 확대시켜나가는 흥미로운 철학적 글쓰기 방식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하는 ‘반복’과 ‘권태’라는 키워드와 그 의미 체계를 통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존적 혼돈 양상은 일정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어, 불문학자이자 문학비평가로 최근에는 생태 문제와 여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윤경희 씨는 「지질, 기후, 비인류 | 글쓰기의 근심과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소고」에서, 환경 상황에 대한 상당히 저널리스트한 리포트를 제출하고 있다. 이 리포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박한 위기감이며, 이 리포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그에 맞서는 실천적 글쓰기이다. 끝자리의 두 글은 이제 문학과 직접 연결된다. 먼저 국문학자이며 문학비평가인 이해원 씨의 「여성적 감각과 상생의 윤리 | 에코페미니즘과 문학」은 생태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미래 전망을 제시하려는 에코페미니즘을 이 자리에 불러들인다. 그리고 그런 인식과 감수성이 한국문학 작품들 속에서 (특히 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억압적 질서를 비판하고, 나아가 돌봄의 가치와 상생의 비전을 펼쳐 보여주는지를 차분히 해명하고 있다. 그 옆에, 역시 국문학자이자 문학비평가인 우찬제 씨가 소설의 영역에서 생태 위기와 문학적 상상을 맞세워 논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 생태 위기와 한국 소설의 대응」이란 평론이 놓인다. 1970년대 ‘공해의 시대’로부터 최근 ‘역병의 시대’에 이르는 사이 환경문제를 다뤘은 한국 소설의 맥락을 자상히 추적하고 있는 이 글은, 때론 사실적 재현으로 때론 우화적 상상력으로 우리를 일깨우는 문학 자체의 가치 또한 상기시키고 있다”

실험적인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작품과 함께 신인 소설가 추천도 이뤄져

강혜빈, 박지일, 정나란, 최하연 시인의 신작 시와 신동원, 이승우, 소설가의 신작 단편, 그리고 윤미희 극작가가 희곡 작품과 더불어 소설가 김종호의 독특한 글쓰기 솜씨가 돋보이는 '텍스트 실험공간'은 문학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줄 것이다. 특히 이번 호에는 그간 만만치 않은 필력으로 문체적 소설을 투고해온 강대호 씨를 신인 소설가로 추천하면서 그 추천작으로 단편소설 「프란츠 카프카」를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사적인 영역과 동시대의 키워드들을 허구화시키는 작업, 소설이라는 형상을 더듬어가는 작업, 하나의 거대한 메타포로서 작동하는 문학 자체를 탐구하는 작업 등, 강대호 씨가 만들어가는 소설 세계는 녹록치 않고 만만치도 않다. 우리가 망각한 “꿈과 꿈 밖의 경계”를, 현실과 현실의 경계를, 허구와 허구의 경계를 탐구하게 만든 강대호 씨에게 응원을 보낸다. 쉽지 않았을 기다림과 창작의 시간도 앞으로 계속될 문학 여정과 모험을 위한 젊고 열정적인 준비 기간이었다고 먼 훗날 문득 알게 되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밤이면 혼자 공상하고 앉아 있길 좋아하는 한 어린 가정부”였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야 한다. 그의 변함없는 소설적 정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제6회 문학실험실 포럼 “문학-지와 문학-장, 그리고 문학사” 전문도 실려

올해로 제6회를 맞는 ‘문학실험실 포럼’은 코로나 사태로 아쉽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으나, 그 논의의 주제는 문학의 미래 전망을 고찰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지점으로 “문학-지와 문학-장, 그리고 문학사” 전반을 짚어보는 것이었다. 이는 제5회 포럼에서 다룬 ‘소설 네트워크 시대의 문학’이란 주제와 무관치 않은데, 그 급격하고 광대한 변화의 징조들이 새로운 전자 매체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이전의 인쇄 매체 특히 문학잡지를 통한 문학 활동의 전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검토하는 게 그 모든 것의 전제로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차례

특집 : 생태적 위기 상황과 인간적 실존

1. 근대 문화와 자연의 개념_비판적 재구성의 시도 | 김태환
2. '생태학'에서 '인류세' 담론까지로 | 신승철
3. 반복에 관하여: 코로나와 일상 | 김동규
4. 지질, 기후, 비인류_글쓰기의 근심과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소고 | 윤경희
5. 여성적 감각과 상생의 윤리_에코페미니즘과 문학 | 이해원
6.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_생태 위기와 한국 소설의 대응 | 우찬제

특집과 함께 : 현장의 목소리: 지구라는 환상 기억 형성

1. 생태 위기와 그 문제의식_코로나 이후의 삶 | 박정은
2. 기억의 공진화 | 이지아
3. 우리는 가끔 환상을 본다 | 정영수
4. 수학자 누(Nu) 17 | 함기석

제6회 문학실험실 포럼 : 문학-지와 문학-장, 그리고 문학사

문학지를 경유하는 현대시사_사건, 매체, 그리고 시인들 | 박연희

1970년대 문학사 서술과 '한국문학의 위상' | 인아영

'문학주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_1990년대 『문학동네』의 자본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 강동호

독립 문학은 가능한가 | 노태훈

텍스트 실험 공간

소년記 | 김종호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

프란츠 카프카 | 강대호 **신인 추천 작품**

이 비 외 2편 | 강혜빈

Selfie 외 2편 | 박지일

옵티컬 볼레로 | 신동원

그녀의 스트립쇼 혹은 '너'라는 악령 쫓기 | 윤미희

물 위의 잠 | 이승우

기슭 쪽으로 3 외 2편 | 정나란

개의 뿔 외 2편 | 최하연

제6회 김현문학패 수상자 발표

김현문학패 소개

선정의 말

수상소감 2020년 9월 8일 일기 | 김숨

입회서 | 신동욱

수상 작가론 뿌리가 되는 꿈_김숨의 예술가, 김숨이란 예술가 | 박혜진

시인의 영토_신동욱 시인의 시 | 박동역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끝의 언어에서 속의 언어로_최규승 시집 『속』 | 김언

이번 호 필자

강대호 | 소설가.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20년 『숲-문학의 이름으로』 이번 호를 통해 정식 등단하는 신인으로, 현재 창작 동인 <동인>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강동호 | 문학평론가.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학과사회』 편집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혜빈 | 시인. 1993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났다. 201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밤의 팔레트』를 펴냈다.

김동규 | 철학자.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멜랑콜리아』 『멜랑콜리 미학』 『철학의 모비딕』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공저) 등 다수의 저서와 『미학적 힘: 미학적 인간학의 근본개념』 『마르틴 하이데거, 너무나 근본적인』 등의 번역서를 펴냈다. 현재 한국연구원 기획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언 | 시인.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998년 『시와사상』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숨쉬는 무덤』 『거인』 『소설을 쓰자』 『모두가 움직인다』 『한 문장』 『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 산문집 『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시론집 『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등을 펴냈다.

김중호 | 소설가. 1970년 전라남도 남원에서 태어났다. 2000년 『문예중앙』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검은 소설이 보낸다』 『산해경루』, 연작소설집 『디포』, 장편소설 『인어공주 이야기』를 펴냈다.

김태환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문학과 및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비평집 『푸른 장미를 찾아서』와 문학 이론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를 펴냈고 다수의 독일 문학서·철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노태훈 | 문학평론가. 1984년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박동역 | 문학평론가.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6년 『중앙일보』의 ‘중앙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했다.

박연희 | 국문학자. 1976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제3세계의 기억』과 공저 『비평 현장과 인문학 편성의 풍경들』 『미당 서정주와 한국 근대시』 『다시 보는 한하운의 삶과 문학』 등을 펴냈다. 현재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문학과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정은 | 일러스트레이터. 1984년에 태어나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왜 그리운 것은 늘 멀리 있는 걸까?』 『뜻밖의 위로』 『공간의 온도』 『내 고양이 박면지』 등의 저서와, 『지금 이대로 좋다』 『당신에겐 그런 사람이 있나?』 등 다수의 공저를 펴냈다.

박지일 | 시인. 1992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20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박혜진 | 문학평론가. 1986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공저 『읽을 것은 이토록 쌓여가고』를 펴냈다. 현재 민음사 문학 편집자로 재직 중이다.

신승철 | 철학자. 1971년 광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탄소 자본주의』 『구성주의와 자율성』 『생태계의 도표』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으며, 현재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신종원 | 소설가. 199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2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으며, 현재 창작 동인 <km/s>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우찬제 | 문학평론가. 1962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욕망의 시학』에서 『애도의 심연』에 이르는 9권의 비평집 및 문학 이론서를 펴냈다. 현재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경희 | 문학평론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 비교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윤미희 | 극작가. 1984년에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전문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희곡 「상상해볼 뿐이지」 「투명한 집」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등을 발표했다.

이승우 | 소설가. 1959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나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한국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미궁에 대한 추측』 『사람들은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다』 『모르는 사람들』 등 7권의 중단편집과 『에리직톤의 초상』 『생의 이면』 『지상의 노래』 등 10권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현재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지아 | 시인·극작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월간문학』을 통해 극작가로, 2015년 『쿨투라』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오토 쿠티르』를 펴냈다.

이혜원 | 문학평론가. 1966년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시의 욕망과 이미지』 『세기말의 꿈과 문학』에서 『지상의 천사』 『현대시의 윤리와 생명 의식』에 이르는 10권의 평론집·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아영 | 문학평론가. 199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18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정나란 | 시인·무용가. 1977년 광주에서 태어나 독일 비텐·안넨 발도르프 교육대학을 졸업했다. 2019년 『쏟-문학의 이름으로』를 통해 등단했으며, 공동 시집 『흙에 도달하는 것들, 가장 가까운 말로』를 펴냈다. 현재 무용 공연 활동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정영수 | 소설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서사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애호가들』을 펴냈다.

최하연 | 시인.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피아노』 『팅커벨 꽃집』 『디스코팡팡 위의 해시계』를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주간으로 재직 중이다.

함기석 | 시인. 1966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시집 『국어선생은 달팽이』 『착란의 돌』 『뿔랑공원』 『오렌지 기하학』 『디자인하우스 센텐스』과 여러 동시집·동화를 펴냈다.